



건협 서울지부, 무료 혈액형검사 실시

당신의 혈액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혈액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각종 검사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혈액형 정도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특히 40대 이후의 성인들은 자신의 혈액형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몇년간 서울시민에 대한 “무료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온 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난해 2회에 걸친 설문조사의 결과 밝혀졌다.



건협 서울지부는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서울시민 3,700여명에게 무료 혈액형 검사를 실시했다.

• 무료 혈액형검사, 매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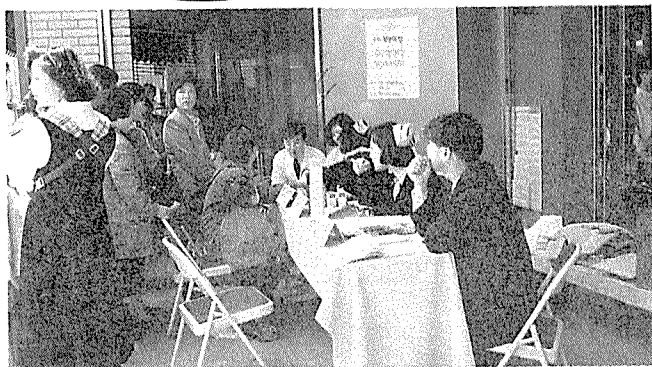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무료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것은 아주 오래 된 일이다. 매년 보건의 달에 건강관리강조주간을 설정하여 실시해 온 가두 무료 건강검사 중의 한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이 검사를 실시해 온 서울지부는 주민들의 호응이 의외로 좋다는데 힘입어 몇년 전부터는 건협창립기념일인 11월 7일에 즈음해서도 무료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한 서울지부는, 올해는 검사를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잘 모르고 있나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지난해 서울시민 3,700여명에 무료 혈액형 검사

지난해 건협 서울지부는 총 3회에 걸쳐 무료 혈액형 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서울시민 3,700여명이 혈액형 검사를 받았다.(물론 그



검사결과 전체 검사자의 10% 정도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다.

전부터 생각한다면 이 숫자의 10배쯤되는 사람들이 이 무료검사를 받고 자신의 혈액형을 제대로 찾았을 것이다.)

명동신세계백화점, 을지로 롯데 백화점, 강서구청 앞, 천호동, 화곡동 새마을 농산물시장 등지에서 실시된 이 가두 무료검사는 그야말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 40대 이후 성인 검사자 에서는 반수 정도가 몰라

건협 서울지부 검사담당자들은 혈액을 채취하면서 일일히, “자신의 혈액형을 알고 계세요? 아신다면 무슨 형이시지요?”라고 묻고, 시민들의 대답을 체크해 두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 결과와 이것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전체 검사자의 10% 정도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특히 40대 이후의 성인에서는 검사자의 반수 정도가 아예 자신의 혈액형으로 모르고 있었다.



건강검사의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농어촌 주민에게도, 이 기본적이고
사소한 무료 혈액형 검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혈액형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상식

각종 건강검사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실 혈액형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갑자기 헌혈이나 수혈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농어촌 등지의 혈액형검사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결과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 하나가 있다. 즉, 이 결과가 그래도 의료의 혜택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데, 서울이 이렇다면 지방,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실태는 어떨까 하는 것이다.

복잡다양한 요즘의 “건강검사”에서 보면 혈액형은 하잘 것 없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작고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농어촌 등지의 주민들에게도 무료 혈액형 검사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